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

노 윤 구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Noh, Yoon Goo

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199 students from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Korea, and had a practicum experience at least one semester before the study began.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3.0. **Results:** It was found that: (a) burnou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both practice stress and emotional labor, whereas a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with social support; (b) social suppor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and burnout, and (c) social suppor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social support decreases the negative effects of practice stress and emotional labor on burnout. Therefore, we ne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for students.

Key Words: Psychological stress, Emotion, Burnout, Social support, Nursing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실습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신체증상 뿐 아니라 감정변화에 대한 갈등을 겪으면서[1]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 전문적 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학 실습 교육이 필수인데, 실습현장에서 간호학생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인 지식과 태도,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한다[2]. 현장에서 일어나는 간호실무를 확인하고 간호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제물, 간호사와의 관계, 의료인의 태도, 실습환경, 실습업무 부담, 역할갈등, 지식과 실무적 요인 등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3,4]. 따라서 실습 스트레스란 간호실습에 대

주요어: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소진, 사회적 지지, 간호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Noh, Yoon Goo

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 Changwondaehak-ro, Uichang-gu, Changwon 51140, Korea.
Tel: +82-55-213-3577, Fax: +82-55-213-3579, E-mail: ygnoh@hanmail.net

- 이 논문은 2016년도 창원대학교 신입교수 연구경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2016.

Received: Aug 1, 2017 | **Revised:** Nov 6, 2017 | **Accepted:** Nov 20,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실습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4].

개인은 직무수행이나 조직 내 적응을 위하여 자신의 실제 감정을 통제하고 조직의 감정표현 규범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하면서 감정노동을 경험한다[5]. 대인접촉을 많이 하는 구성원은 많은 시간을 다양한 사람들과 보내면서 분노, 당황스러움, 두려움, 절망의 감정을 겪게 되며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감정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6]. 보건의료영역인 간호에서의 감정은 암묵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며 여성노동의 일부분으로 축소는 경향이 있다[7]. 역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노동은, 간호사 뿐 아니라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도 경험하는 것이다[8-12]. 학생들은 임상지도자, 간호사, 환자, 동료학생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을 경험하는데 이들의 감정노동은 긴장, 스트레스, 양가감정, 혐오, 혼란, 갈등, 무더지는 감정, 능력부족과 좋은 평가에 대한 바램 등의 형태였다[1,10-12]. 학생들은 임상실습 동안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관리하였는데 이러한 감정 관리를 감정노동이라고 하였다[11]. 학생들은 감정노동에서 거리 두기, 자기강화, 자기동기부여 하기, 의미최소화 등의 방법으로 감정에 대처하였다[10]. 감정노동은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인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 또는 일련의 훈련과정을 통해 학습될 수 있으므로[13]. 학생들은 실습을 하면서 자신들의 역할모델인 간호사들의 감정노동과 대처방법을 관찰하여 학습한다고 볼 수 있다. 감정노동에 대한 학습효과는 앞으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바람직한 감정 관리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간호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지쳤다는 정서적 고갈을 느끼면서, 대상자를 냉담하게 대하고, 자존감 저하로 자기가 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심리적 상태를 가지는데, 타인을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고객의 과도한 정서·심리적 요구로 인해 정서적 자원이 고갈되어 관심과 감정을 상실하게 되는 심리적 증상인 소진을 보인다[6]. 간호대학생은 실습교육에서 실습부담, 실습교육환경,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모델, 환자와의 갈등, 대인관계 갈등 등으로 인한 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결국 학생들을 소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8,9,14,15]. 감정을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이 간호의 한 영역으로 암묵적으로 인식되어 온 감정노동은 실습 학생들의 소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8, 9]. 따라서 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를 돕고 심리적 건강을 위하여 소진을 예방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건강 모형에서 사회적 지지는 주요한 사회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16]. 간호대학생의 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학생들은 실습동안 스트레스와 갈등 등의 다양한 긴장을 경험하므로 자신들에게 적절한 조언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회적 지지가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10-12].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17], 사회적 지지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 경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감정노동의 영향력을 매개하거나 조절하여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22].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에 국외에서는 학생들의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10-12]가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1]와 감정노동과 소진에 대한 연구[8, 9]가 일부 수행되어 양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소진의 관계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중요한 학업성취 과정인 실습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실습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수준을 파악하여, 이들이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실습동안 사회적 지지 강화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소진 관리를 위한 중재방법을 모색해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 소진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 소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 소진의 관계를 확인한다.
-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서술적 인과 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1개의 대도시와 1개의 중소도시의 4개 간호학과 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편의 표집하였다. 대상자는 적어도 한 학기는 임상실습을 한 학생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Cohen (1988)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한 G*Power 3.1.7 프로그램[19]을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검정을 위하여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95, 효과 크기(ES)=.15로 하였을 때 172명이 제시되어 탈락률 20%를 고려하면 본 연구대상자수 215명은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한 21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07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6.1%), 불완전한 데이터 8부를 제외한 총 19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실습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Kim 과 Lee [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했으며,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Kim 과 Lee [3]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실습교육환경 .626,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746, 실습업무부담 .611, 대인관계 갈등 .645, 환자와의 갈등 .675였으며 실습 스트레스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7이었다.

2) 감정노동

본 연구에서는 Morris와 Feldman [5]의 연구를 기초로 Kim [20]이 개발한 도구를 간호대학생의 실습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감정표현의 빈도 3문항,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3문항, 감정적 부조화 3문항의 총 9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ang [8]의 연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감정표현의 빈도 .676,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635, 감정적 부조화 .745였으며 감정노동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8이었다.

3)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Han과 Yoo [21]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도구 24문항에, 교수 지지 문항 8문항을 실습지도자 지지 문항으로 추가하여 구한 점수를 말한다. 친구 지지 8문항, 가족 지지 8문항, 교수지지 8문항, 실습지도자 지지 8문항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사회적 지지 제공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과 Yoo [21]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친구 지지 .84, 가족 지지 .91, 교사 지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친구 지지 .882, 가족 지지 .931, 교수 지지 .911, 실습지도자 지지 .871이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8이었다.

4) 소진

본 연구에서는 Maslach와 Jackson [6]이 개발한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Choi와 Chung [17]이 번안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간호학생의 실습에 맞게 몇 개의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소진은 정서적 소진 9문항, 자아성취감 저하 8문항, 비인간화 5문항의 총 22문항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혀없음’ 1점에서 ‘매일’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고, 긍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여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Baik과 Yom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으며,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 .90, 비인간화 .83, 자아성취감 저하 .84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정서적 소진 .874, 자아성취감 저하 .843, 비인간화 .832였으며 소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1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연구원이 4개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연구자가 학생들의 강의실로 찾아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수집하였다. 회수된 응답지 중 누락분 8명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8명을 제외한 199명을 최종 분석하였으며 회수율은 96.1%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목적과 진행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결과를 승인 받았다(승인번호: IRB No: 104027-201611-HR-018). 자료수집 전에 연구자와 연구원이 학생들의 실습집담회 장소로 찾아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자의로 연구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서면설명문으로도 제공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참여 동의서와 함께 본 연구자와 연구원이 수거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 소진은 기술통계로 구하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 소진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 소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검정하였다.

gression)으로 검정하였다.

-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23]의 3가지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검정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이때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셋째, 독립변수의 효과가 2단계의 효과보다 적어야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하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이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하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하면 부분매개이다.

연구 결과

1.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 소진의 정도

실습 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에 2.71 ± 0.45 점이었으며, 감정노동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5 ± 0.68 점이었다. 사회적 지지 평균은 5점 만점에 3.63 ± 0.42 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가족 지지가 4.30 ± 0.67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지지 4.00 ± 0.52 점, 교수 지지 3.41 ± 0.67 점이었으며 실습지도자 지지가 2.82 ± 0.63 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진 평균은 5점 만점에 2.54 ± 0.51 점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는 3학년과 4학년이 고루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2세였다. 대부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였으며(92.0%)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우세하였다(59.3%). 학생들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96.0%), 전공(94.0%)과 실습(94.5%)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성적은 중간수준(66.8%)이 많았다.

대상자의 실습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학년($t = -2.65$, $p = .009$)으로 3학년보다 4학년이 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 감정

노동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연령($F=5.16, p=.006$), 성격($t=2.38, p=.018$), 전공만족($t=-2.39, p=.018$)이었다. 연령대가 낮고, 성격이 예민하며, 전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 통계적으로 감정노동이 높았다. 사회적 지지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전공만족($t=3.32, p=.001$), 실습만족($t=2.25, p=.025$), 성적($F=5.47, p=.005$)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만족하고, 실습에 만족하며, 성적이 상위와 중위인 경우 하위인 경우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소진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의사소통($t=-2.17, p=.031$)과 학교 성적($F=10.17, p<.001$)이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성적이 하위이거나 중위인 인 경우 상위보다 소진이 높았다.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진은 실습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42, p<.001$), 감정노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r=.43, p<.001$), 사회적 지지와 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r=-.46, p<.001$).

사회적 지지는 실습 스트레스와 부적상관($r=-.26, p<.001$) 이, 감정노동과 부적상관($r=-.26, p<.001$)이 있었으며, 감정 노동과 실습 스트레스는 정적상관($r=.40, p<.001$)이 있었다 (Table 2).

Table 1. Means and Correlations betwee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Social Support and Burnout ($N=199$)

Variables	M±SD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Social support	Burnout
		r (p)	r (p)	r (p)	r (p)
Practice stress	2.71±0.45	1			
Emotional labor	3.05±0.68	.40 (<.001)	1		
Social support	3.63±0.42	-.26 (<.001)	-.26 (<.001)	1	
Friend	4.00±0.52	-.18 (<.010)	-.17 (.017)	.66 (<.001)	-.30 (<.001)
Family	4.30±0.67	-.04 (.554)	-.02 (.789)	.64 (<.001)	-.19 (.007)
Professor	3.41±0.67	-.23 (.001)	-.21 (.003)	.77 (<.001)	-.38 (<.001)
Clinical lecturer	2.82±0.63	-.24 (.001)	-.29 (<.001)	.59 (<.001)	-.37 (<.001)
Burnout	2.54±0.51	.42 (<.001)	.43 (<.001)	-.46 (<.001)	1

Table 2. Differences i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Social Support, and Burnou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Social support		Burnou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cademic year	Third	110 (55.3)	2.64±0.46	-2.65	3.02±0.70	-0.53	3.64±0.43	.39	2.55±0.52	0.15
	Fourth	89 (44.7)	2.81±0.42	(.009)	3.08±0.66	(.596)	3.62±0.40	(.694)	2.54±0.51	(.881)
Age (year)	20~22 ^a	165 (82.9)	2.71±0.44	0.00	3.11±0.66	5.16	3.61±0.41	1.16	2.57±0.50	1.08
	23~25 ^b	23 (11.6)	2.72±0.51	(.998)	2.92±0.82	(.006)	3.73±0.45	(.316)	2.43±0.54	(.340)
	≥26 ^c	11 (5.5)	2.72±0.41		2.46±0.52	a>c	3.74±0.46		2.41±0.65	
Health status	Healthy	183 (92.0)	2.71±0.45	-0.45	3.06±0.67	0.85	3.64±0.41	.54	2.53±0.51	-0.89
	Not healthy	16 (8.0)	2.76±0.42	(.654)	2.96±0.81	(.391)	3.55±0.47	(.589)	2.65±0.51	(.373)
Character	Sensitive	118 (59.3)	2.70±0.44	-0.38	3.14±0.63	2.38	3.61±0.43	-.96	2.59±0.52	1.58
	Not sensitive	81 (40.7)	2.73±0.46	(.700)	2.91±0.74	(.018)	3.67±0.39	(.336)	2.47±0.50	(.115)
Communication	With difficulty	8 (4.0)	2.78±0.37	-0.42	3.38±0.67	-1.38	3.31±0.57	2.21	2.93±0.34	-2.17
	Without difficulty	191 (96.0)	2.71±0.45	(.669)	3.03±0.68	(.168)	3.64±0.40	(.028)	2.53±0.51	(.03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187 (94.0)	2.71±0.46	-0.36	3.02±0.69	-2.39	3.66±0.40	3.32	2.53±0.52	-1.39
	Not satisfied	12 (6.0)	2.76±0.31	(.716)	3.50±0.52	(.018)	3.26±0.46	(.001)	2.74±0.39	(.166)
Practice satisfied	Satisfaction	188 (94.5)	2.71±0.45	-0.84	3.04±0.68	-0.81	3.65±0.41	2.25	2.53±0.51	-1.75
	Not satisfied	11 (5.5)	2.83±0.32	(.399)	3.21±0.70	(.414)	3.36±0.44	(.025)	2.81±0.39	(.081)
Academic grade	High level ^a	38 (19.1)	2.74±0.44	0.09	2.98±0.66	0.38	3.75±0.44	5.47	2.24±0.45	10.17
	Middle level ^b	133 (66.8)	2.71±0.44	(.914)	3.08±0.67	(.685)	3.64±0.38	(.005)	2.59±0.47	(<.001)
	Lower level ^c	28 (14.1)	2.72±0.49		3.00±0.79		3.42±0.50	a, b>c	2.74±0.60	b, c>a

a, b, c=Scheffé test.

Table 3. Factors Influencing Burnout

(N=199)

Variables	Categories	Step1		Step2		Step3	
		β	t (p)	β	t (p)	β	t (p)
Communication	Without difficulty	reference					
	With difficulty	.13	2.04 (.042)	.10	1.73 (.084)	.06	1.21 (.225)
Academic grade	High level	reference					
	Middle level	.32	3.90 (<.001)	.31	4.45 (<.001)	.28	4.18 (<.001)
	Lower level	.32	3.97 (<.001)	.33	4.69 (<.001)	.25	3.71 (<.001)
Practice stress				.31	4.92 (<.001)	.25	4.23 (<.001)
Emotional labor				.28	4.45 (<.001)	.23	3.82 (<.001)
Social support						-.28	-4.68 (<.001)
		R ² =.11, Adjusted R ² =.09, F=8.28 (p<.001)		R ² =.36, Adjusted R ² =.34, F=21.65 (p<.001)		R ² =.43, Adjusted R ² =.40 F=23.66 (p<.001)	

4. 변수들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특성 중 소진에 차이를 보인 의사소통과 성적을 가변수로 변환하여 통제하고 실습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확인한 Dubin-Watson 통계량은 1.95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성의 문제는 없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0~1.50으로 기준치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최종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하였고 소진의 총 변량의 40.7%를 설명하였다(Adjusted R²=.40, F=23.66, p<.001). 최종 모형에서 대상자의 특성 중 성적중위(β=.28, p<.001)와 성적하위(β=.25, p<.001)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β=-.28, p<.001), 실습 스트레스(β=.25, p<.001), 감정노동(β=.23, p<.001)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확인되었다(Table 3).

5. 실습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실습 스트레스와 소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하여 Baron과 Kenny [23]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실습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26, p<.001), 2단

계에서 독립변수인 실습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소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β=.42, p<.001).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실습 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β=-.38, p<.001). 이때 독립변수인 실습 스트레스의 표준화 계수는 .42에서 .32로 감소하였으므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존재하며 부분매개를 하였다. 즉, 실습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소진이 증가하는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사회적 지지의 매개를 통하여 그 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test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3.23, p=.001).

6.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이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β=-.25,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이 종속변수인 소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β=.41, p<.001).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β=-.38, p<.001). 이때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의 표준화 계수는 .41에서 .32로 감소하였으므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존재하며 부분매개를 하였다. 감정노동을 많이 지각할수록 소진이 증가하는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사회적 지지의 매개를 통하여 그 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부분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and Burnout an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Variables	B	SE	β (<i>p</i>)	R ²	Adj. R ²	F (<i>p</i>)	Z (<i>p</i>)
Step 1							
Practice stress → Social support	-0.24	0.06	-.26 (<.001)	.06	.06	14.38 (<.001)	
Step 2							
Practice stress → Burnout	.048	0.07	.42 (<.001)	.17	.17	42.56 (<.001)	3.22 (.001)
Step 3							
Practice stress → Burnout	0.36	0.07	.32 (<.001)	.30	.30	44.24 (<.001)	
Social support → Burnout	-0.46	0.07	-.38 (<.001)				
Step 1							
Emotional labor → Social support	-0.15	0.04	-.25 (<.001)	.06	.06	13.96 (<.001)	
Step 2							
Emotional labor → Burnout	0.29	0.04	.41 (<.001)	.17	.16	40.59 (<.001)	3.22 (.001)
Step 3							
Emotional labor → Burnout	0.22	0.04	.32 (<.001)	.31	.30	43.35 (<.001)	
Social support → Burnout	-0.46	0.07	-.38 (<.001)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Sobel test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3.22,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 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2.71점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3.14점[9]과 3.17점[24], 3.65점[25]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감정노동 평균은 3.05점으로 선행연구의 3.17점[8]과 3.30점[9]보다 낮았다. 한편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임상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3.24점[22]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학생은 실습을 하면서 직접간호를 책임지는 간호사들이 느끼는 정도의 감정노동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소진의 평균은 2.54점으로 간호학생의 소진 평균 2.41점(5점 척도로 변환)[8], 2.95점[9]의 중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실습병원이 부속 병원인지, 선배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인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소진의 정도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63점이었으며 하부요인인 가족 지지가 4.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지지가 4.00점으로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실습상황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같은 도구를 사용한 국가고시를 앞둔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에서 사회적 지지 평균이 3.72점이고 하부요인 중 가족 지지가 4.09점, 다음으로 친구 지지 3.94점이었다[26]. 즉,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3.63~3.72점 사이로 볼 수 있으며, 가족과 친구 지지를 가장 높이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실습 스트레스는 소진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9,14,15]. 이렇듯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는 소진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학과 학생은 많은 시간을 임상 실습을 해야 하며 할당된 과제, 환자 안녕과 관련되는 책임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7].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의 수업방식과 달리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전공학생들보다 스트레스가 높으며[28], 많은 시간을 실습지에서 보내야 하는 부담, 실습지도를 하는 간호사와의 관계, 낯선 실습 환경, 실습과제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실습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며, 과중한 실습 스트레스는 학생들을 소진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3,4,15,28]. 따라서 실습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은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정노동은 소진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8,9]. 감정노동과 소진의 연구는 최근에 이뤄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감정노동과 소진이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9]. 학생들은 실습을 하면서 실습지도자, 간호사, 동료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감정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9-12]. 학생들의 이러한 감정경험은 학생들을 소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실습 스트레스와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 따라 실습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낮추는 접근은 실습으로 인한 소진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실습에서의 소진과 부적상관을 가졌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이 낮음을 의미한다. 실습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소진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소진이 부적상관을 가지고 [29],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소진과 부적상관을 가지며 [22], 상담자의 동료 지지와 가족 지지가 심리적 소진과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 [17]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지지와 하부요인이 업무와 학업 관련 소진을 낮추는 것으로 보아 실습에 대한 소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습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부적상관을 가지는데, 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느끼지 못함을 의미한다. 실습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여 논의가 제한적이나 교수지지는 실습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30], 지지가 낮은 경우 실습 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감정노동은 사회적 지지와 부적상관을 가지는데,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감정노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실습에서의 감정노동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논의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후속연구로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사회적 지지는 실습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실습 스트레스와 소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여 소진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실습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 16]. 본 연구에서 실습 스트레스는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소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습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통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지지는 실습 스트레스 영향력을 낮추는 매개변수로서 완충역할을 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는 실습 관련 소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심층면담에서 학생들은 실습 중에 스트레스와 갈등 등의 다양한 긴장을 경험하므로, 자신들이 경험하는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과 지지가 필요하며 엄격하지 않은 친절한 지도자가 좋다고 하여 지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0-12].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는 하위요인으로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수 지지, 실습지도자 지지를 포함하는데, 실습에서의 학생들은 가족 지지와 친구 지지 점수가 높았다. 실습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교해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 국가고시 준비 기간의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

지 연구에서도 가족 지지와 친구 지지가 높았다 [26]. 이는 상황이 다르더라도 높은 스트레스에서 간호대학생들은 가족 지지와 친구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실습에서 학생들은 교수 지지와 실습지도자 지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실습동안 교수의 지지와 실습지도자 지지를 낮게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이 실습에서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 교수, 임상지도자들은 협동적으로 실습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8].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의 실습내용 뿐 아니라 실습환경에서의 힘들었던 상황들에 대한 조언으로 학생들을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습지도자들은 학생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실습을 지도하므로 간호사로서의 역할 모델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안내로 학생들을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교육자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학생들이 잘 적응하도록 학생 스스로가 대처방법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활용 가능한 좋은 대처방법으로 사회적 지지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28]. 따라서 실습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교수 지지,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실습지도자 지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학생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감정노동과 소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여 소진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감정노동은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감정노동이 심해지면 소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감정노동이 사회적 지지를 통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지지는 감정노동 영향력을 낮추는 매개변수로서 완충역할을 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는 실습 관련 소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은 실습 중에 긴장, 양가감정, 혐오, 갈등, 무뎌지는 감정 등의 감정 관리로 바빴으며 [10, 11], 자신들을 대체인력으로 여겨 모든 것을 떠맡는 경험, 환자의 죽음으로부터 받는 상처, 실습 중 간호를 배우는 관계인 실습지도자들의 편견과 감시, 역할모델의 부재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을 경험하였다 [10-12]. 학생들은 실습에서 인간적인 모습과 전문가다운 모습을 조화롭게 보여야 한다는 도전과 감정적인 압박을 받았으며 이때 실습지도자들의 편견 없는 지지와 동료학생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12]. 학생들의 복잡하고 개별적인 감정요구가 해결되고 감정대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지가 필요하므로 [12], 실

습교육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이 실습에서 경험한 낮설고 대처하기 어려운 감정상황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감정에 대한 대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실습에서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과 소진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로 후속연구로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와 건강에 관한 모형은 사회적 지지가 주요한 사회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16].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매개로 작용하였음을 검정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습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교수 지지와 실습지도자 지지는 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학생의 실습 안내와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와 실습지도자의 지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높은 점수를 보인 가족 지지와 친구 지지의 속성을 파악하여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에 의한 소진을 감소시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실습경험과 실습과목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유능한 간호사로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간호행정가와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실습에서 소진을 경험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실습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여 간호대학생의 실습으로 인한 소진 감소와 장기적으로는 간호사로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소진, 사회적 지지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 스트레스, 감정노동,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 선행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의 구성요인들을 확인하기 위

한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Park JW, Ha NS.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03;12(1):27-35.
2. Sung MH.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2;18(1):18-24.
3.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98-106.
4.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205-213.
5. Morris AJ, Feldman DC. The dimensions antecedent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u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96;21(4):986-1010.
<https://doi.org/10.5465/AMR.1996.9704071861>
6. Maslach C, Jackson SE.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1981;2(2):99-113.
<https://doi.org/10.1002/job.4030020205>
7. Gray B. The emotional labour of nursing-Defining and managing emotions in nursing work. *Nurse Education Today*. 2009;29(2):168-175.
8. Kang SY.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on burnout during nursing practice in a hospital: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1):77-87.
<https://doi.org/10.1111/jkana.2015.21.1.77>
9. Lim YJ.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burnou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1):461-474.
10. Arieli D. Emotional work and diversity in clinical placement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13;45(2):192-201.
11. Msiska G, Smith P, Fawcett T. Exposing emotional labour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their clinical learning experience: A Malawian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 Nursing Sciences*. 2014;1:43-50.
<https://doi.org/10.1016/j.ijans.2014.07.001>
12. Jack K, Wibberley C. The meaning of emotion work to student nurses: A Heideggerian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14;51:900-907.

-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3.10.009>
13. Grandey AA. Emotion regulation in the workplace: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2000;5(1):95-110.
<https://doi.org/10.1037/1076-8998.5.1.95>
14. Deary IJ, Watson R, Hogston R. A longitudinal cohort study of burnout and attr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3;43(1):71-81.
15. Ko CM. Effect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um stress and burnou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7;25(2):120-127.
<https://doi.org/10.17547/kjsr.2017.25.2.120>
16. Glanz KE, Lewis FME, Rimer BK.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th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8. 189-210 p.
17. Choi HY, Chung NW. Perfectionism tendency,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counselor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3;8(2):279-300.
18. Heo YM. Factors affecting the burnout of nurses in cancer ward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2016;8(1):137-153.
19.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7; 39(2):175-191.
20. Kim MJ. Effects of the hotel employee's emotional labor upon the job-related attitud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1998;21 (2):129-141.
21. Han MH, Yoo AJ.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96;17(1):173-188.
22. Baik DW, Yom YH.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2;18(3):271-280.
23.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6):1173-1182.
24. Yeom EY.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4):320-330.
<https://doi.org/10.5392/JKCA.2017.17.04.320>
25. Lee NY, Kim SH, Kim YS.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clinical practice stres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tudies on Education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2016;28(3):619-629.
<https://doi.org/10.13000/JFMSE.2016.28.3.619>
26. Noh YG, Lee YS.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est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11):633-643.
<https://doi.org/10.5392/JKCA.2016.16.11.633>
27. Shriver, C.B., Scott-Stiles, A., 2000. Health habits of nursing versus non-nurs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9(7):308-316.
28. Reeve KL, Shumaker CJ, Yearwood EL, Crowell NA, Riley JB. Perceived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Nurse Education Today*. 2013;33(4):419-424.
29. An MJ, Kang AY, Kim YA, Kim MJ, Kim YL, Kim HW, et al. Hwang YY. Comparison of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stress, and social support by grad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7;30(2):113-123.
30. Yang YK, Han KS, Bae MH, Yang SH.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4;22(1):23-33.